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에 관한 研究

玉 漢 錫*

<目 次>

1. 序 論	3.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
(1)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1) 18世紀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
(2) 研究地域	(2) 20世紀初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
2. 江原道の 世居氏族	4. 結 論
(1) 土姓과 亡姓의 分布	
(2) 續姓의 分布	

1. 序 論

(1)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특정 氏族이 어떤 곳에 入郷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후, 그의 子孫이 대를 이어가며 村落을 형성해 나가는 過程은 이미 몇몇 연구에서 밝혀놓고 있다. 楊普景은 京畿道 華城郡 半月面 四里에 形成되어 있는 楊州 崔氏 同族村落의 起源을 살펴보고, 家屋이 定着되어 주변으로 擴散되면서 空間을 충진시켜 同族村落이 成立되는 과정 및 家屋의 立地를 밝혔다¹⁾, 李廷滿은 여기에 덧붙여 延安 李氏 同族村落인 全北 完州郡 九耳面 平村里 元平村의 耕地面積과 耕地所有의 變化를 조사하였다²⁾, 또한 柳濟憲은 驪州郡 大神面 塘南里 당남마을에서 廣州 李氏가 1570년경 살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 形成된 村落의 發達段階를

설명하였다³⁾. 즉 거기서 보이는 廣州 李氏의 分家慣行과 居住分化는 同族結合력이 集村形成의 要因으로 작용한 結果라고 보았다. 金德鉉은 安東郡과 그 일대에 眞寶 李氏(인접 郡縣 本貫姓) 義城 金氏(인접 郡縣姓), 安東 權氏(安東本府 本貫姓), 豊山 柳氏(安東屬縣 本貫姓), 全州 柳氏(遠隔地 本貫姓)등 名家門의 世系, 戶長 및 官職 등을 조사하여 居住地移動과 擴散過程, 儒敎文化景觀 및 그의 立地를 밝혔다⁴⁾. 韓半島 全體上에서, 달리 말해 小縮尺地圖上에서 氏族의 居住地起源과 移動·擴散過程은 川島藤也가 다루었다. 그는 하바드대학 燕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文化 柳氏世譜를 統計的으로 分析하여 居住地的 地理的 擴散過程을 연구하였다. 居住地的 推定은 ‘近親者는 死者를 그의 居住地 부근에 매장하는 古風’으로 보고 墓誌記錄을 중심으로 文化柳氏의 居住地移動이 4단계에 걸쳐 이

* 江原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專任講師

- 1) 楊普景,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一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제 7호,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pp. 29-52.
- 2) 李廷滿, 1983, 元平村의 景觀變化에 對한 研究, 서울大 大學院碩士學位論文, 80p.
- 3)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의 研究—驪州·利川地方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제 6호,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pp. 103-104.
- 4) 金德鉉, 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景觀—安東地方의 土族村落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pp. 241-251.

루어졌다고 하였다⁵⁾.

이들 研究는 특정 氏族 한, 둘 또는 名家門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더우기 微視的인 接近을 할 경우 村落開拓의 地理的 要因을 충분히 밝혀 내지 못하고 郡 정도의 地理的 縮尺上에서는 居住歷史가 긴 名門巨族 村落의 분석에만 치우쳐 있어 전체 村落開拓의 方向에 관련된 문제들을 소홀히 다룰 수 밖에 없었다. 이에 本研究는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어떤 氏族들이 移住해 왔는가를 살펴 高麗初以來 朝鮮中期까지 江原道 世居氏族과 비교해 보고, 이들 氏族들이 入鄉하여 家系를 이어가며 주변을 개척, 自然部落을 형성하고, 다시 수개의 自然部落이 모여 里·面을 형성, 분화되는 過程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는 嶺西太白山地의 村落開拓史를 밝히는 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本研究地域의 行政區域, 市場分布, 交通路등의 變化를 조사해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成立過程을 설명해 보게 되는 것이다.

특정 地域의 開拓史로는 W.P. Webb의 西部 開拓史를 들 수 있다. 그는 美國에 있어서 1840년 경까지는 습윤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으며 山岳이 널려있는 미시시피강 以東을 주로 개척해 왔으나, 그후 이와는 서로 상이한 自然的 條件을 가진 대평원(Great Plains), 즉 건조하고 편평하며 광활한 草地에 도달하였을 때 기존의 生活樣式이나 制度가 쓸모없이 되거나 再調整되고 크게 變化되었다고 하였다⁶⁾. D.W. Meinig 또한 南東部の 濕潤 亞熱帶地域·北部的 濕潤 大陸性 氣候地域·西部의 沙漠地域으로 이루어져 있는 텍사스 지방에서 스페인인, 앵글로색슨인, 니그로족 등 다양한 人種이 이들 自然環境과 어울려 이루어낸 텍사스의 文化와 地域構造를 植民開拓 初期부터 20세기 초반까지 通時的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⁷⁾. 이들 양자와는 달리

B. Graham은 1169년 이후 동아일란드에 있어 노르만족이 이주해 온 이후 켈트족의 촌락과 다른 유형의 村落이 이루어지는 過程 즉 植民化過程(colonization)과 擴大를 살폈다⁸⁾.

嶺西太白山地에 있어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過程을 밝히기 위하여 本研究地域의 全自然部落을 대상으로 野外踏査를 실시하여 氏族들의 入鄉時期, 入鄉動機, 移住經路, 村落 擴大過程 등을 살펴 보았다. 이는 各自의 家系가 記錄되어 있는 族譜의 先代 墓誌記錄을 중심으로 推定했고 現在까지 口傳되어 오는 家族說話로 보충하였다. 또한 洞·里·面의 形成分化過程은 村老와의 面談과 아울러 文獻調査를 병행하였다. 즉 「輿地圖書」(1755~1765), 「關東邑誌」(1872),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⁹⁾,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¹⁰⁾ 등을 利用하여 地圖化했다. 朝鮮中期 以前 江原道の 世居氏族은 「世宗實錄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등의 姓氏條를 정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大東輿地圖, 靑丘圖 등을 활용하여 朝鮮時代의 交通路와 驛·院의 分布등을 조사했으며 市場의 分布變化도 林園十六志(1834), 增補文獻備考(1846~1906), 朝鮮의市場(1924)(1941), 定期市場調查報告(1978)등을 기초로 野外調査에서 확인하였다. 嶺西太白山地에 氏族들이 이주해 와 山間을 開拓한 時期가 대개 17세기 초 이후이므로, 그 이전은 江原道の 世居氏族의 分布變化를 통해 알게 되고, 그 이후는 다시 18세기와 20세기 초라는 두 기간에 村落의 擴大가 뚜렷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세 기간으로 區分하게 되는 것이다.

(2) 研究地域

嶺西太白山地는 江原道內에서 文化環境上 嶺

- 1) 川島藤地, 1974, “文化柳氏にみられる氏族の移動とその性格—儒教的 官僚體制と血統集團,” 朝鮮學報, 第七十輯, pp. 43-74.
- 2) Webb, W.P., 1977, *The Great Plains*, Ginn and Company, Boston, p. 525.
- 3) Meinig, D.W., 1979, *Imperial Texas: an Interpretive Essay in Cultural Geography*,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and London, p. 145.
- 4) Graham, B., 1976, “The Evolution of the Settlement Pattern of Anglo-Norman Eastmeath,” in *Fields, Farms and Settlement in Europe*, (eds., Buchanan, R.H., Butlin, R.A. and McCourt, D.), Ulster Folk and Transport Museum, p. 46.
- 5) 越智唯七編, 1912,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85, 翻刻發行), 太學社.
- 6) 朝鮮總督府編,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85, 翻刻發行), 太學社.

西中部와 南部地方에, 自然環境上 北漢江上流과 南漢江上流에, 方言分布上 嶺西方言圈과 西南嶺東方言圈에 속하는 漸移地帶이다. 오늘날의 生活圈에 의하면 江陵圈과 原州圈으로 兩分되나 朝鮮時代에는 대부분 江陵圈에 속하였다. 農業地帶로는 山間傾斜地와 高冷地에 해당되는 곳이다. 따라서 1) 本研究地域은 嶺西·嶺東, 嶺西北·南部의 交叉路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村落이 형성되는 過程을 단순하고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朝鮮時代의 漢城—平海路間 驛路가 지나가므로 文化의 東西交流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 本연구지역은 북쪽 인접군인 麟蹄郡이 軍駐屯地로서, 남쪽 인접군인 旌善郡이 炭田地帶로 더 알려져 있어,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過程이 비교적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나아가 3) 本研究地域은 대부분 500~1,000m의 高冷地이므로 山間高冷地라는 점에서는 同質地域이고, 500m 이하나 1,000m 이상의 地帶 또한 混在하므로써 海拔高度라는 地形의 條件을 고려한 村落形成의 文化生態的인 特性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村落形成의 歷史가 짧을 수 밖에 없다. 本

研究地域은 行政區域上 洪川郡, 橫城郡, 平昌郡의 3개 군에 걸쳐 있다. (그림 1)

2. 江原道の 世居氏族

嶺西太白山地의 어느 곳에 어떤 氏族이 먼저 살게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충분치는 않으나, 17세기 이전 즉 高麗時代·朝鮮初의 江原道內에 居住한 主要 氏族들을 우선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推定할 수 있다. 당시의 氏族이란 각각 父系 血統을 나타내며 家系가 이어져 나가게되는 姓과 어떤 한 시대에 정착해서 살던 居住地를 나타내는 本을 갖고 있는 것이다. 新羅末·後三國初期에 姓의 分化와 사용 확대가 있었으나,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는 고려초까지 분화해 오던 姓이 더 이상 分化되지 않고 定着한 지역을 토대로 土豪化함으로써 土豪의 所在地인 各行政地域을 姓보다 앞서우는 本의 성립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羅末以後 地方의 豪族勢力들이 高麗의 地方編制 속에서 그들의 세력기반을 구축해 나간 셈이 되며, 그 이후의 社會變動에 따라 成長과 消滅의 過程을 겪게 되었다. 물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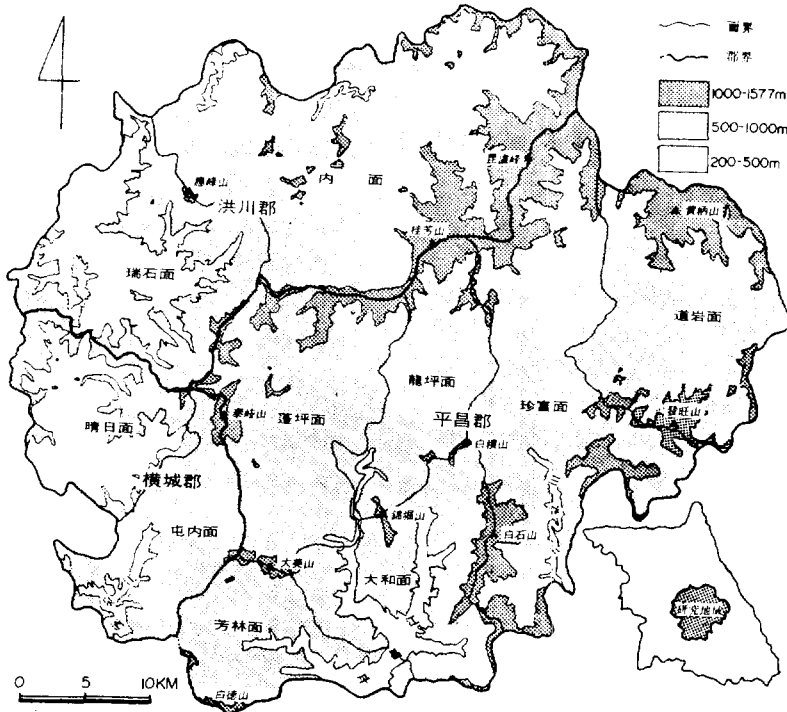


그림 1. 研究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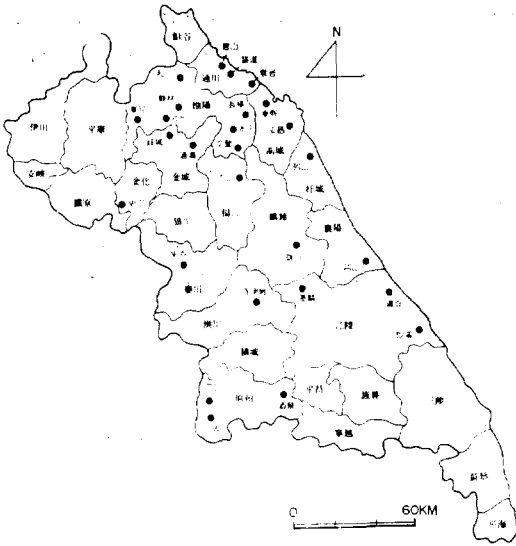


그림 2. 江原道の 行政區域(朝鮮時代)

은 오늘날의 江原道 行政區域보다 다소 넓었던 統一新羅의 朔州와 溟州의 直轄地 및 各郡縣에 중앙의 科擧제에 따라 考選된 地方官이 統一新羅末期 이후 土豪로서 정착해 나간 支配民들이었다. 高麗時代의 五道兩界 地方制度에 의하여 江原道가 交州道, 楊廣道, 東界에 속하고 각각 州·郡·縣을 두게 되었지만 그들의 경계는 알 수 없고, 단지 朝鮮時代의 行政境界로서 고려시대 때 살았던 氏族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¹¹⁾. (그림 2)

(1) 土姓과 亡姓의 分布

高麗 成宗時(995년) 地方編制의 개편으로 土着勢力의 '本'을 일단 정리하여 姓氏錄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현존하고 있지는 않으나 高麗末, 朝鮮初에 보이는 姓氏關係 資料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世宗實錄地理志」에 보이는 土姓은 기재되어 전승되어 오는 각각의 자료에 계속 남아 있던 姓氏들이 분명하며, 이는 특정 郡縣에서 꾸준히 그의 血族을 분화시켜 나간 土着勢力인 것이다. 그림 3에 따르면 江原道 全域에 골고루 土姓이 分布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2, 3개의 土姓이 각각의 郡縣에 존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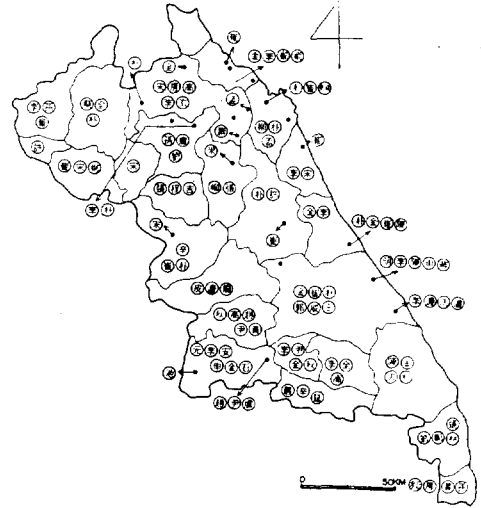


그림 3. 土姓의 分布(資料, 世宗實錄地理志)

江陵 6·原州 6·淮陽 5·橫城 5로 많고, 通川 4·襄陽 4·平昌 4·蔚珍 4·平海 4 정도이다. 물론 이것은 朝鮮初의 行政區域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되고, 屬縣·鄉·所·部曲에도 土姓이 多數分布하였다. 連谷이 5姓으로 제일 많고, 羽溪 4·洞山 4·卷假 3·酒泉 3이다. 이들은 朝鮮 行政區域의 序列上 下層民에 속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高麗時代에는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들 在地土姓들의 존재 상태와 진출과정, 중요 가문과 인물의 世系 및 婚姻關係 등을 살펴보면, 江陵府의 6개 土姓 가운데 金·王·崔氏는 전기에, 朴·郭·咸氏는 후기에 각각 土族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 土姓吏族의 혼인관계는 族內婚과 同本土姓間의 통혼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原州牧은 江陵府와 함께 토성세가 강하여 元·李·安·金氏 등이 차례로 上京從土하고 土族化하였다. 寧越에는 嚴氏와 辛氏가 高麗後期에 土族으로, 橫城縣에서는 尹·高·趙氏가 차례로 성장한 것이다. 三陟의 金氏와 沈氏는 후기에 土族과 吏族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은 在地族勢가 강하여 本貫의 戶長을 세습하였다. 春川 朴氏는 麗初부터 在京官人과 在地吏族으로

11) 江原道 朝鮮時代의 行政區域은 盧道陽教授의 「15세기 朝鮮의 農牧業」중에서 따왔고, 屬縣·鄉·所·部曲의 위치는 元慶烈教授가 작성해 놓은 江原道の 行政地圖를 참고하여 임의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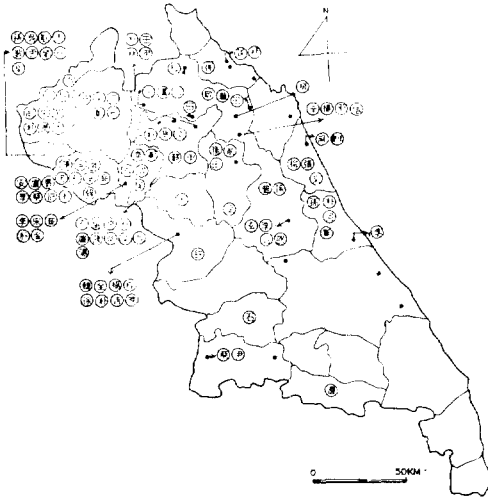


그림 4. 亡姓의 分布(資料, 世宗實錄地理志)

분화되었는데 태조 공신인 朴儒의 자손은 전자에, 高宗朝 春川吏에서 출세한 朴恒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高城 朴氏와 通川 金氏는 吏族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江原道地域은 주읍 26, 속현 20 가운데 고려시대 士族을 낳은 군현은 10여읍에 불과하며 襄陽·金城·金化·洪川·淮陽·伊川·狼川·楊口·麟蹄·杆城·歙谷 등과 같은 主邑에는 吏族은 있어도 上京從士하는 官人은 거의 내지 못하였고, 강릉부의 羽溪縣을 제외한 屬縣은 말할 것도 없었다. 즉 江原道에서는 江陵을 중심으로 한 東海岸 일대와 嶺西의 春川 및 原州地方의 土姓들이 대체로 강성하여 많은 官人을 배출하였던 것이다¹²⁾. 이들 土姓은 朝鮮時代를 거치면서 族勢가 약화되어 消滅되어 버린 것도 있을 수 있다¹³⁾.

한편, 亡姓은 姓氏資料의 하나인 古籍에는 있으나 현재(朝鮮初)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¹⁴⁾ 이는 신분이 상승하여 本貫地를 옮겼거나 몰락하여 他地方으로 居住地를 이동해간 경우 이외

에도 전쟁 등과 같은 비상시에 자신들의 姓氏를 관계기록에 기재하여 놓지 못한 경우가 있겠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이 亡姓이 주로 嶺東北部나 嶺西北部地方에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契丹이나 女眞, 蒙古 등의 침입 등을 많이 받은 영향이 아닐까 풀이된다¹⁵⁾. 2차례의 女眞族의 침입(1010년, 1018년)으로 通川·高城·杆城·襄陽·江陵·三陟의 駐屯軍이 방어에 나섰다고 보며, 契丹族과의 전투에서(1217년) 鐵原·春川·原州地方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高宗 40년(1253년)에 蒙古兵이 鐵原·金化를 거쳐 春川·原州에까지 침입하였던 것이다¹⁶⁾.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世居氏族이 沒落하거나 居住地를 옮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이 이동해간 通路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즉 咸南에서 鐵嶺을 넘어 淮陽에 이르는 길, 平安道에서 伊川을 거쳐 鐵原에 이르는 길, 鐵原에서 春川을 거쳐 原州를 통하는 길, 鐵原에서 東豆川과 楊平을 거쳐 原州를 지나 다시 堤川과 忠州로 통하는 길, 嶺東과 嶺西를 잇는 襄陽에서 寒溪嶺을 넘어 麟蹄로 통하는 길, 江陵에서 大關嶺을 넘는 길, 三陟에서 北坪의 용추골로 白伏嶺을 넘어 旌善·寧越·酒泉·原州로 통하는 길 등이 戰略上이나 人口移動의 중요한 길이었던 것이다¹⁷⁾. 結果的으로 江陵, 洪川, 平昌, 旌善, 三陟, 蔚珍, 平昌 등지는 慶尙道의 小白山脈과 마찬가지로 居住地移動이 적었던 지역으로 볼 수 밖에 없고, 嶺西太白山地도 비교적 人口流入이 적었던 高冷地였던 것이다.

(2) 續姓의 分布

亡姓과 마찬가지로, 高麗初에 본이 성립된 후 고려말까지 居住地를 옮기거나 姓氏錄에 추가 혹은 滅亡한 姓으로 「世宗實錄地理志」에는 來姓·續姓·入鎮姓·加現姓 등으로 표기되어 있

12) 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pp. 294-300.

13) 韓國의 姓氏大觀에 江原道內를 本貫으로 하는 姓氏數가 고려때보다 훨씬 줄어든 것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姓氏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4) 《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京畿道 廣州牧 「土姓三李安金 加屬姓三朴盧張(此六姓據古籍及本道關錄之其之 加屬者 古籍所書 後皆倣也) 亡姓五尹石韓池素(凡稱亡姓謂 古籍所有而今無者 後皆倣者) (傍點: 引用者)

15) 그림 4에서 亡來姓(朴:通溝, 許:平康), 次姓(辛:洪川)은 표시하지 않았다.

16) 建設部 國立地理院, 1984, 韓國地誌(地方篇Ⅱ) p. 16.

17) 上掲書, pp.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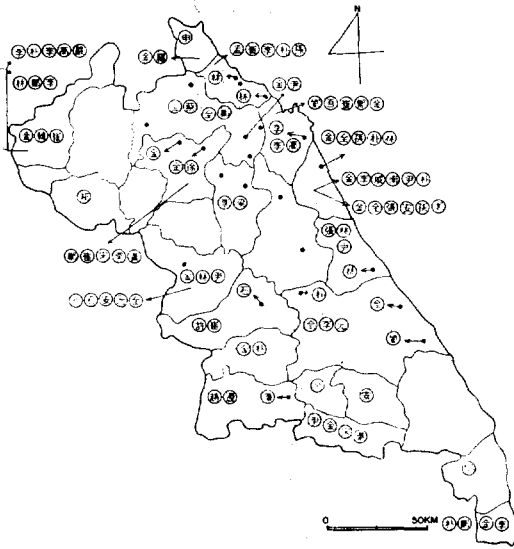


그림 5. 續姓의 分布(I)(資料, 世宗實錄地理志)

다. 이 중 江原道에는 入鎭姓이나 加現姓은 별로 없고 거의 續姓이 많다. 그림 5에서 江原道로 移住해 온 이들 續姓의 分布를 보면 杆城 12, 伊川 11로 제일 많고, 通川 5, 高城 5, 金城 5, 寧越 4, 平海 4의 順이며 각 郡縣에 2개 姓 정도는 분포한다. 三陟·平康·金化·狼川·麟蹄 등은 移入姓은 없다. 이들을 本貫地別로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旌善 全氏의 人口移動이 제일 활발하였고 原州 元, 平昌 李, 平海 孫, 酒泉 尹氏 등의 居住地移動이 왕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本貫地別 續姓의 分布(高麗時代)
※ () 안은 居住地

本貫	姓	氏
旌善	全(江陵) 全(連谷) 全(洪川의 寺伊岩) 全(春川) 全(杆城) 金(杆城의 列山) 全(淮陽)	
原州	元(江陵) 金(橫城) 崔(金城) 安(春川) 元(春川)	
平昌	李(江陵) 李(伊川) 李(杆城) 金(杆城)	
平海	黃(金成) 孫(杆城) 孫(杆城의 列山) 孫(通川)	
酒泉	尹(寧越) 林(春川) 尹(春川)	
永川	金(寧越) 閔(蔚珍)	
襄陽	鄭(金城) 金(高城)	
川寧	崔(洪川) 李(高城의 安昌)	
慶州	安(金城) 李(通川)	
寧海	朴(平海) 朴(通川)	

堤川	石(春川) 安(麟蹄)
興寧	安(旌善)
橫城	趙(原州)
晉州	康(原州의 酒泉)
豐基	秦(寧越)
密陽	朴(橫城)
清道	金(淮陽)
平康	蔡(淮陽)
務安	鄭(淮陽)
三陟	金(淮陽의 水入)
寧州	李(金城)
咸安	李(伊川)
海州	高(伊川)
蔚珍	林(伊川)
陝川	李(伊川)
寧越	嚴(伊川)
玄風	鄭(伊川)
金海	金(平海)
安城	李(平海)
盈德	鄭(平海)
咸昌	金(春川)
忠州	池(春川)
楊根	咸(麟蹄)
永春	尹(麟蹄)
英陽	南(麟蹄)
陰竹	金(麟蹄)
丹陽	張(麟蹄)
盈德	朴(麟蹄)
甫城	朴(杆城의 列山)
蔚珍	林(杆城의 列山)
江陵	崔(高城)
九事	鄭(高城)
加恩	李(高城의 安昌)
利安	高(高城의 安昌)
迎日	鄭(杆城)
開京	金(平昌)

資料: 世宗實錄地理志

이러한 居住地 擴散過程이 朝鮮中期에 들어와서는 더욱 활발해진다. 「輿地圖書」의 各郡縣別 姓氏條에서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의 것을 제외하고 그들의 分布를 작성해 본 결과 그림 6과 같다. 金化 17·春川 16·原州 24·平海 14·江陵 11·楊口 10·襄陽 18·高城 16이 제일 많은 郡縣이고, 鐵原 9·狼川 7·淮陽 7·麟蹄 5·杆城 5·寧越 8·蔚珍 8 등이 그 다음이다. 洪川과 平康, 高城, 平昌, 三陟 등은



그림 6. 續姓의 分布(Ⅱ)(資料, 輿地圖書)

全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本貫地別로는 安東 權氏의 移入이 제일 많았고, 迎日 鄭·草溪 鄭·寧越 辛·平海 黃·三陟 沈·江陵 金·江陵 崔·清州 韓·蔚珍 張·昌原 黃·南陽 洪·清松 沈·坡平 尹·英陽 南·順興 安·豐襄 趙氏 등의 移住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朝鮮中期의 移入姓은 嶺西太白山地로 유입해 와 山間地를 개척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본다. (표 2) 그러나 이들 姓氏들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느 곳에서 江原道로 많이 진입해 왔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이것 역시 人口移動이란 여러 곳을 거치게 되므로 확실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표 2. 本貫地別 續姓의 分布(朝鮮前·中期)
※()안은 居住地

本貫	姓	氏
安東	權(江陵) 權(原州) 林(金化) 權(金化) 權(平海) 權(高城)	
草溪	鄭(江陵) 鄭(襄陽) 鄭(旌善) 卞(寧越) 鄭(寧越)	
江陵	金(襄陽) 崔(金化) 崔(蔚珍) 金(杆城) 咸(杆城)	
坡平	尹(寧越) 尹(平海) 尹(高城) 尹(金化)	
寧越	辛(江陵) 嚴(高城) 辛(高城)	
迎日	鄭(江陵) 鄭(春川) 鄭(杆城)	
平海	黃(江陵) 黃(蔚珍) 黃(春川)	

三陟	沈(江陵) 沈(高城) 金(杆城)
清州	朴(襄陽) 韓(原州) 韓(平海)
南陽	洪(原州) 洪(寧越) 洪(春川)
昌寧	成(原州) 仇(金化) 曹(金化)
慶州	李(襄陽) 金(金化) 金(襄陽)
濟州	高(江陵) 高(襄陽)
寧海	李(江陵) 朴(金化)
全義	李(襄陽) 李(平海)
蔚珍	張(襄陽) 張(平海)
昌原	黃(襄陽) 黃(金化)
青松	沈(原州) 沈(金化)
懷德	宋(寧越) 宋(平海)
原州	元(金化) 邊(春川)
英陽	南(平海) 南(蔚珍)
順興	安(平海) 安(春川)
丹陽	禹(平海) 池(春川)
豐壤	趙(春川) 趙(高城)
金海	金(高城) 許(高城)
驪興	閔(江陵) 閔(原州)
善山	金(春川) 吉(高城)
杆城	李(江陵)
信川	康(江陵)
咸平	李(襄陽)
安城	李(襄陽)
嘉山	李(襄陽)
悉原	尹(襄陽)
平康	蔡(襄陽)
光州	盧(襄陽)
陽川	許(原州)
豐山	洪(原州)
羅州	林(襄陽)
橫城	高(寧越)
清風	劉(寧越)
義城	丁(寧越)
高靈	申(越寧)
奉化	琴(寧越)
驪陽	陳(橫城)
鎮川	張(金化)
平山	申(金化)
海州	崔(平海)
蔚山	朴(平海)
永春	秦(金化)
楊根	咸(金化)
奉安	廉(金化)
谷城	任(金化)
廣州	李(平海)
旌善	全(平海)
大興	白(平海)
辛州	田(蔚珍)

醴泉	林(蔚珍)
玄風	郭(蔚珍)
盈德	尹(蔚珍)
熊川	朱(蔚珍)
文化	柳(春川)
完山	李(春川)
史吞	葛(春川)
南原	梁(春川)
龍潭	廉(春川)
龍宮	尹(杆成)
迎步	於(杆城)
象山	盧(高城)
昇州	李(高城)
扶安	張(高城)
永興	韓(高城)
全州	柳(高城)
狼川	宋(通川)
金化	蔡(通川)
歙谷	池(高城)

資料：輿地圖書

3.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氏族의 移動과 村落의 形成

嶺西太白山地는 朝鮮初期의 行政區域上 江陵 大都護府, 橫城縣, 洪川縣에 속하였다. (그림 7) 따라서 所屬郡의 土姓으로 主邑에 살고 있던 江陵 金·江陵 崔·江陵 朴·江陵 郭·江陵 咸이나 洪川 皮·洪川 邊·洪川 龍·橫城 秋·橫城 高·橫城 趙·橫城 尹·橫城 黃氏등의 姓氏가 이 지역을 개척하는데 거리상 유리하였으리라 본다. 당시 漢城—平海路 驛路가 雲交驛, 芳林驛, 大和驛, 珍富驛, 橫溪驛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驛卒들이 驛村을 形成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나, 해발 500m 이상의 山間 高冷地에 氏族들이 일찍부터 터를 잡고 살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18世紀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

특정 村落에 최초로 이주해 온 姓氏를 조사한 野外踏査의 資料를 토대로 할 때, 嶺西太白山地에 氏族들에 의하여 村落이 새로 開拓된 것은 17세기 初 以後부터이다. 虎鳴里의 慶州 金(1690년경), 巨文里의 延安 金(1639년경)·全州 李

(1648년경), 蓮坪里의 密陽 朴(1647년경)·玄風 郭(1654년경)·平海 黃(1635년경)·信川 康(1667년경), 安味里의 江陵 金(1565년경)·漢陽 趙(1620년경), 禾洞里의 順興 安(1650년경), 石門里의 慶州 金(1614년경)·原州 李(1619년경), 屯坊內里의 清州 韓(1664년경), 鳥項里의 竹山 安(1640년경), 內面 1里의 全州 李(1627년경)·密陽 朴(1650년경), 2里의 金寧 金(1649년경), 流津里의 牛峰 李(1684년경)·全義 李(1622년경), 筮谷里의 全州 李氏(1682년경) 등이 이주해 왔다. 이들 氏族들이 각자 그들의 家系를 중심으로 自然部落을 형성해 나갔다고 할 때, 그 수가 많지 않아 17세기에는 里의 分化가 심화되지 않았고 대개 道巖里, 珍富里, 蓮坪里, 大和里, 屯內里, 內面里(가칭), 瑞石里라고 하는 行政單位에 소속되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들 7개 里는 나중 面으로 바뀌게 된다. (그림 8)

또한 이들 氏族들의 本貫地가 江陵 金氏, 原州 李氏의 두 경우를 빼놓고는 모두 江原道 이외의 他道를 本貫地로 하고 있다. 密陽 朴氏는 高麗時代에 橫城으로 이주해 왔으므로(표 1) 蓮坪里나 內面1里의 密陽 朴氏는 사실상 江原道內에서 다시 嶺西太白山地로 2차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朝鮮中期 즉 16세기까지는 平海 黃(江陵, 春川), 清州 韓(原州, 平海), 慶州 金(金化, 襄陽), 全義 李(襄陽, 平海), 順興 安(平海, 春川), 信川 康(江陵), 玄風 郭(蔚珍) 등이(표 2) 江原道로 이주해 왔으므로 이들 氏族들이 17세기초 이래 嶺西太白山地로 이동하는데 거리상 유리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나머지 氏族들을 고려해 볼 때 嶺西太白山地는 江陵府, 洪川縣, 橫城縣 등 所屬 郡縣治所에서의 人口增加壓力에 의하여 土姓들이 개척해 나간 곳이라기보다는 中央의 政治·軍事的 要因에 의하여 氏族移動이 이루어져 開懇을 하게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端宗復位運動과 관련된 金文起의 6代孫이 洪川으로부터 江陵內面으로 피신차 이주해 온 內面 2里의 金寧 金氏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들 家門은 慶尙道 尙州로부터 洪川으로, 다시 內面으로 피신차 이동하는 경로를 밟았다. 그 후 內面 2里를 중심으로 노양동, 새목, 큰한동, 원당골 등으로 후손이 擴散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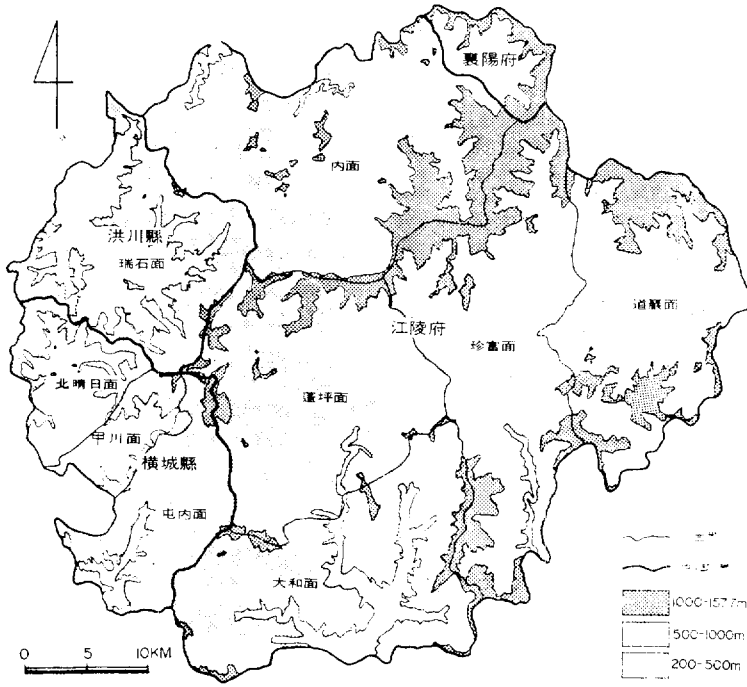


그림 7. 朝鮮時代の 行政區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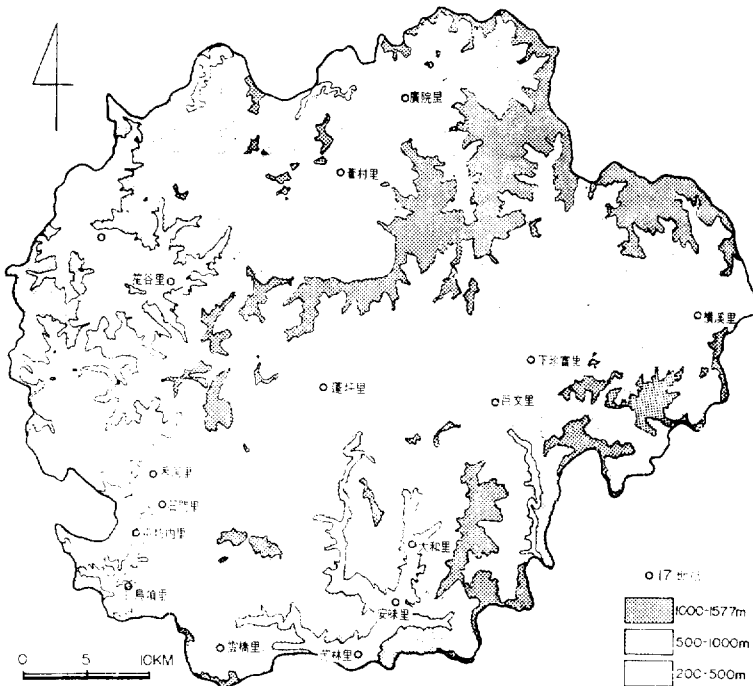


그림 8. 17世紀末의 里

17세기에 이주해 온 氏族들을 嶺西太白山지를 개척해 나간 入鄕祖로 볼 때 해발고도란 自然的 條件이 村落의 分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치·군사적으로 피신처 散在하여 世居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芳林—橫溪를 잇는 驛路와 屯內—구두미재—蓬坪을 잇는 小路가 氏族의 이동과 村落의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여진다. 사실 蓬坪에서 九木嶺을 넘어 筮谷里로 통하는 길은 江陵이나 原州에서 洪川으로 가는 셋길이었던 것이다. 또한 下珍富驛에서 月精寺로 가는 小路中에서 방아다리 약수터를 지나 內面 廣院里에 이르는 小路는 東沙里에서 內面으로 넘는 해발고도 1,100m의 雲頭嶺을 넘는 것보다 손쉬웠으리라 여겨진다. (그림 9) 따라서 이러한 交通路의 分布로 보아서는 原州—安興—雲交—大和—珍富—橫溪—江陵을 잇는 驛路와 原州—屯內—蓬坪—珍富—橫溪—江陵의 直線小路 交通路의 주변이 먼저 開拓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屯內에서 蓬坪에 이르는 通路는 江陵을 중심으로 한 獬國과 春川을 중심으로 한 濊國이 서로 각축한 東西文化의 接點이었고, 구두미재의 泰岐山에 이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 大關嶺 또한 高麗太祖 19年(서기 936년) 王順式이 이끄는 江陵地方의 軍事가 後百濟와 一戰을 벌이기 위해 넘었던 곳이다.

18세기에 이르러 道巖里的 延安 金(1736년경), 金海 金(1720년경), 東沙里的 金寧 金(1736년경), 蓬坪里的 晉州 河(1787년경)·寧越 辛(1770년경), 綿溫里的 木川 馬(1738년경)·昌原 黃(1790년경), 大和里的 長興魏(1741년경), 桂村里的 密陽 朴(1710년경), 馬余味里的 金寧 金(1733년경), 自浦谷里的 寧越 辛(1700년경), 右用里的 南陽 洪(1755년경), 玄川里的 坡平 尹(1710년경), 春堂里的 慶州 金(1754년경), 甲川里的 金海 金(1744년경), 楡垆里的 淸州 鄭(1753년경), 古時里的 橫城 高(1783년경), 新垆里的 金海 金(1715년경), 內面 1里的 光山 卓(1793년경), 水下里的 全州 李(1796년경), 原州 邊(1720년경), 筮谷里的 橫城 高氏(1780년경) 등이 嶺西太白山지로 유입하였다. (그림 10) 原州 邊氏와 橫城 高氏가 인접한 橫城縣 晴日面, 洪川縣

瑞石面으로 이주해 왔을 뿐 대부분 江原道 이외의 他道에서 이주해 온 姓氏들이다. 물론 이들도 江原道內에서 2次로 이동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은 朝鮮後期の 社會變動을 계속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다. 다시 말해 山間地의 開拓이 18세기에 이르러 本格化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道巖里 松亭의 延安 金氏家門은 光海朝에 旌善으로 피난해 와 은둔하면서 차츰 자손들이 五台川을 따라 珍富로 넘어간 하나의 예인 셈이다. 당시 江陵都護府의 內面과 旌善郡 北面은 中央政客의 피난지로 알맞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들 氏族들은 이미 17세기에 定着하여, 自然部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의 인근에 터를 잡거나 새로 開拓하여, 18세기에 들어서면 대개 2, 3개 個의 氏族들이 居住하고 있는 2, 3個의 自然部落이 里라고 하는 行政單位로 독립하게 되고, 이들 里가 모여 一個의 面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屯內面의 경우 이것이 뚜렷하다. 17세기 경 順興 安氏가 무사골·정문거리에, 慶州 金氏가 선재들에, 原州 李氏가 판관터·꽃벼루에, 淸州 韓氏가 샘골·선락동에, 竹山 安氏가 새목, 추동에 自然部落을 이루어 흩어져 居住하다가, 18세기에 들어와 漢陽 趙氏가 무사골로, 金寧 金氏가 상마암으로, 寧越 辛氏가 상자포와 하자포, 迎日 鄭氏가 땅중무로, 坡平 尹氏가 윗가무내로 이주해 와 屯內面은 9개 里로 分化되었다. 그 分化의 時期는 알 수 없다. 蓬坪面의 경우는 17세기에 蓬坪里였음이 명확하다. 그 이전 高麗時代와 朝鮮初에는 江陵都護府의 岐豐坊이라 불리웠던 것으로 보아 軍事的인 要地였음을 알 수 있다. 平昌江의 支流인 興亭川의 中流兩岸에 형성되어 있는 沖積地의 小溪谷 즉 본동, 장촌, 황서방골, 상포항, 북길동에 密陽 朴, 平海 黃, 信川 康, 玄風 郭氏 등이 散在해 居住하며 蓬坪里를 이루고 있었다. 18세기에 와서는 里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寧越 辛氏가 북길동의 對岸과 부드래골에, 晉州 河氏가 백옥포와 의풍포로 이주해 왔고, 木川 馬氏와 昌原 黃氏가 興亭川에서 상당히 떨어진 삼동가, 길음동, 서문동의 自然部落을 개척하였다. 이들 木川 馬氏와 昌原 黃氏가 중심이 되어 개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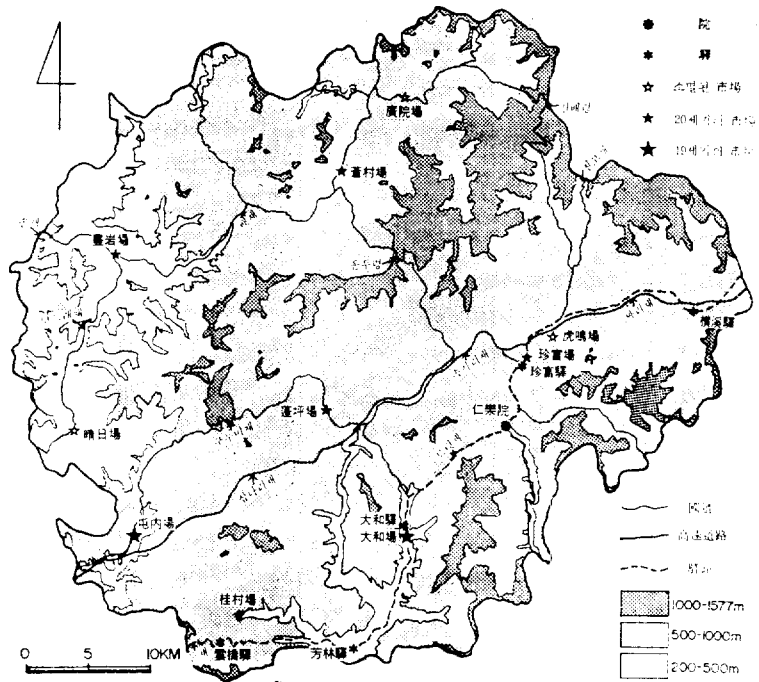


그림 9. 交通路와 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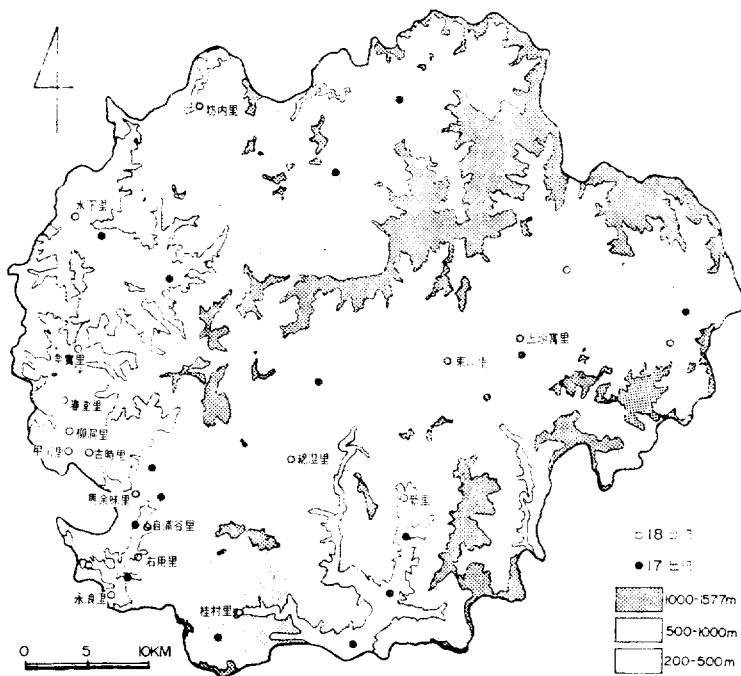


그림 10. 18世紀의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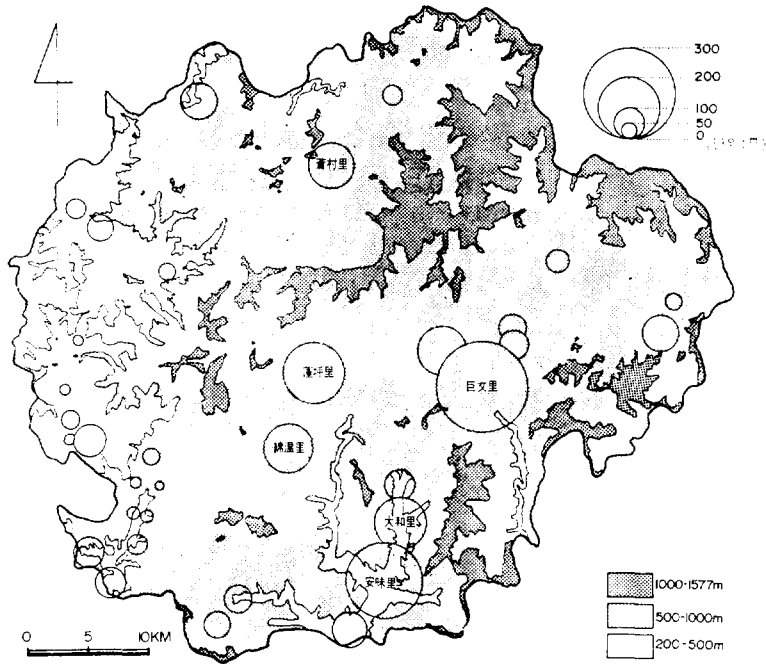


그림 11. 18世紀의 里別戶數

村落을 綿溫里라 하며, 18세기에는 이들 蓬坪里와 綿溫里를 합해 蓬坪面이라 일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中期까지 江陵府, 橫城縣, 洪川縣의 里에 불과했던 道巖里·珍富里·大和里·蓬坪里·內面里·北晴日里·甲川里·屯內里·瑞石里가 18세기에 들어와 각각 道巖面·珍富面·大和面·蓬坪面·內面·北晴日面·甲川面·屯內面·瑞石面으로 그 居住範圍와 戶口數가 늘어나게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는 珍富—芳林의 驛路와 屯內—蓬坪의 直線小路를 따라 계속 진행되는 한편, 500m이하의 低平地인 屯內面·晴日面·瑞石面に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7세기 村落의 分布地를 起源으로 擴大된 前者의 예는 上珍富里, 束沙里, 新里, 綿溫里등이고, 馬余味里, 自浦谷里, 右用里, 玄川里, 永浪里, 玄川里, 粟實里, 甲川里, 古時里 新岱里 등은 後者의 경우에 속한다. 덧붙여 洪川江의 支流인 乃村川을 따라 水下里, 筮谷里로 人口가 유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戶口分布를 살펴보면, 芳林—橫溪의 驛路와 屯內—蓬坪의 小路 주변에 많은 戶數가 分布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巨文里 285戶, 束沙里 160戶, 蓬坪里 200戶, 道巖里 120戶, 綿溫里 160戶, 新里 101戶, 大和里 172戶, 安味里 242戶, 芳林里 106戶 등이다(그림 11). 內面과 蓬坪面·珍富面은 500m 정도의 同一한 高位平垣面임에도 불구하고 50~100戶 정도의 차가 나는 理由는 交通路에 의한 開拓時期가 서로 다른데 있지 않을까 풀이된다. 內面 1리는 151戶, 2, 3리는 각각 65戶, 120戶이다. 해발고도 500m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屯內面, 北晴日面, 甲川面은 50戶 內外의 里가 많다. 禾洞里 51戶, 馬余味里 33戶, 石門里 31戶, 自浦谷里 38戶, 軍伊谷里 40戶, 右用里 63戶 등이며, 栗實里 20戶, 柳洞里 54戶, 春堂里 25戶, 粟實里 30戶, 甲川里 104戶 정도이다. 이들 3개면이 전체 戶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里의 分化가 大和面, 珍富面, 蓬坪面, 內面, 道巖面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구명해 볼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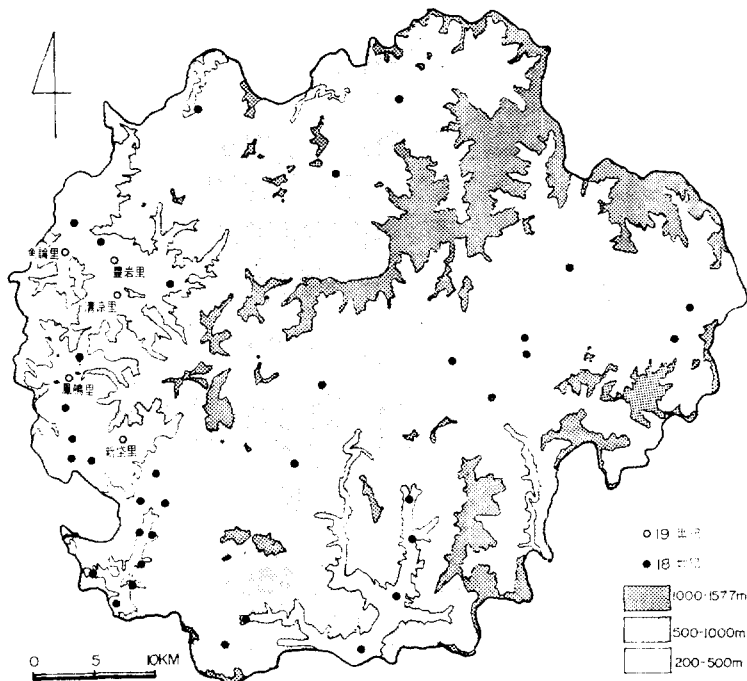


그림 12. 19世紀의 리

(2) 20世紀初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

18세기와 비교해 19세기 전반까지는 山間高冷地의 開拓이 크게 進行되지 않았다. 단지 해발 고도가 낮은 瑞石面과 晴日面에 계속 里의 分化가 촉진되고, 600m 이상의 最高冷地인 道巖面에 氏族들이 이주해 와 居住하기 시작한 정도이었다. (그림 12) 橫溪里의 鳳山 李(1887년경), 道巖里의 延安 金(1871년경)·永川 李(1863년경)·海州 崔(1836년경)·金海 金(1828년경), 洞口里의 全州 李(1852년경), 武夷里의 秋溪 秋(1867년경), 粟實里의 金海 金(1825년경), 一里의 驪陽 陳(1873년경)·慶州 金(1872년경), 淸涼里의 密陽 朴氏(1843년경) 등이 이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平安道와 黃海道에 本貫地를 둔 姓氏들로서 아마 本貫地의 地形·氣候條件이 비슷한 高冷地로 移住해 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개 鄭鑑錄을 신봉해 조상들이 南下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道巖里 龍山의 永川 李氏 경우 1863년경 旌善郡의 接壤地인 鳳山·龍山을 倅난처로 先祖들이 믿고 왔다고 했다. 이는 물론 집안에 口傳되어 오는

說話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 五臺山이나 雲頭嶺을 넘어 大和面이나 珍富面에서 內面으로 가는 交通路가 방아다리 약수터고개나 九木嶺을 넘는 고개와 마찬가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며, 이것이 후일 麟蹄·襄陽과 平昌을 南北으로 이어주는 國道의 기초가 되는 길이다. (그림 9) 19세기에는 大和場이나 屯內場이 5日場으로 開市되어 大和場은 蓬坪面·珍富面·內面·道巖面に 거주하는 이들이 이용하였고 屯內場은 北晴日面·甲川面·瑞石面 일부 大和面 일부에서 이용하였다. 그 以前 朝鮮中期까지는 市場을 開設할 만큼 人口數가 많지 않아 주로 江陵邑內場이나 橫城邑內場, 洪川邑內場에 다녀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大和場과 屯內場이 江陵·洪川·橫城邑內場 다음으로 嶺西太白山地를 양분하는 低次位中心地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림 9)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1912년)에 이르러서는 蓬坪面, 珍富面, 道巖面, 內面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 500m 이상의 高地帶에 많은 人口가 유입해와 里의 分化가 급속도로 進行된다. 蓬坪面의 경우 19세기까지 2개리에 불과하던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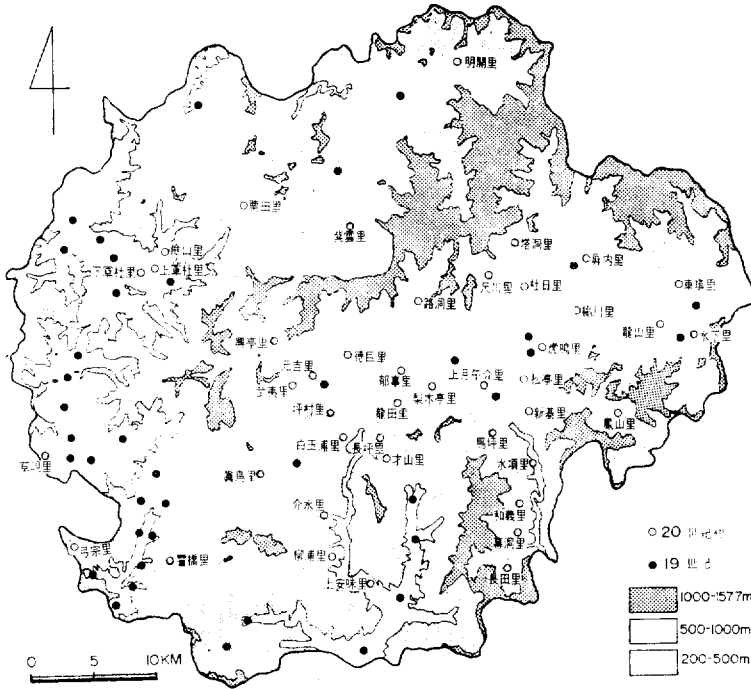


그림 13. 20世紀의 里

倉里, 坪村里, 北吉里, 德巨里, 眞鳥里, 武夷里, 浦項里, 柳浦里 등 10개리로 증가하였고, 珍富面 또한 5개리였던 것이 間坪里, 塔洞里, 尺川里, 杜日里, 上月午介里, 新基里, 馬坪里, 水項里, 和義里, 幕洞里, 長田里, 梨木亭里, 都事里, 路洞里, 龍田里, 長坪里 등 20개리로 급증하였다. 그만큼 蓬坪面和 珍富面이 새로운 開拓地로 적합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道岩面의 경우 18세기까지 2개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12년경에 이르면 里로 독립할 만큼 人口數도 모자라고 高位平坦面을 이루고 있어 洞里간의 경계도 불명확하여 自然部落과 里가 혼재하고 있었다. 義野地, 橫溪里, 車來地, 蘆洞, 大基里, 道巖里, 水下里, 榆木亭, 虎鳴里, 末面里, 狗宿里, 白日洞 등이 이것이다. 이들은 1912년 이후 橫溪里, 車項里, 龍山里, 水下里, 榆川里, 虎鳴里, 屏內里, 道巖里的 8개리로 통합된다. 內面의 경우 역시 紫雲里, 鳥項里, 下北谷里, 小閑里, 院堂里, 廣院里, 生屯里, 栗田里 加眞浦와 美山里, 如車洞, 坊內洞, 城內洞, 龍淵洞 등 2개 小面으로 나뉘어져 있었

으나 明開里, 廣院里, 蒼村里, 栗田里, 坊內里, 紫雲里의 6개리로 통폐합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內面和 道巖面이 가장 늦게까지 開拓이 진행된 面으로 20세기 초반까지 行政里와 自然部落이 分化되지 않고 혼재하다가 1917년에서야 정리되는 셈이었다. (그림 13)

이렇게 깊은 山間高冷地까지 開拓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日帝初의 土地調查事業과 農業技術의 發達에 연유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즉 日帝初 平地農土에서 쫓겨난 수많은 農民들이 火田으로 農土를 개척할 山林이 보존되어 있는 山間地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한 山間地에서도 어느 정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새로운 品種이나 技術이 보급된 덕분일 것이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村落은 대개 3~4代 정도의 역사를 갖는 氏族이 最古이며 祖父代에 이주해 온 것이 더욱 흔하다. 이들 氏族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곤란하다.

移住民의 증가로 새로운 村落이 開拓되고 里의 分化가 급속히 진행되자 屯內場, 大和場 이의 晴日場, 豐岩場, 蒼村場, 珍富場, 蓬坪場,

桂村場, 廣院場이 추가 開設되었다. 이후 晴日場, 廣院場은 소멸한다. (그림 9) 특기할 것은 道巖面이 하나의 地理的 結節地임에도 불구하고 場이 서지 않았던 것은 江陵과의 근접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嶺東의 셋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는 地形的인 條件으로 本研究地域의 最高冷地에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가장 불리한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日帝初이는 모릿재를 넘는 驛路가 폐쇄되는 대신, 安興에서 芳林, 大和를 지나 蓬坪의 長坪에서 다시 屯內와 大關嶺으로 갈라지는 新作路가 개설된다. 이는 朝鮮時代의 驛路와 小路가 부분적으로 합하여져 새로 개편되는 셈이었다. 長坪이 東西·南北을 이어주는 交叉路 구실을 해 새로운 交通의 中心地로 등장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蓬坪은 정채하게 되는 것이다. 그후 1973년에 嶺東高速道路가 屯內의 삼다리재를 지나 長坪, 珍富, 橫溪를 잇는 直線, 다시 말해 朝鮮時代의 直線小路로 開通되고, 당시의 小路들이 國道로 바뀌게 된 것은 17세기와 그 이전부터 氏族들이 移動을 하며 村落을 開拓해 온 덕분이다. (그림 9) 20世紀初 里의 分化和 村落의 擴大는 1960년대까지 계속되어 기존의 里는 法定里로 승격되고 다시 下珍富 1·2·3里 등 行政里로 세분되게 되었다.

4. 結 論

本研究는 嶺西太白山地에 어떤 氏族들이 移住해 왔는가를 살펴 高麗初 以來 朝鮮中期까지의 江原道 世居氏族과 비교해 보고, 이들 氏族들이 入鄕한 후 家系를 이어가며 주변을 개척, 自然部落을 형성 다시 수개의 自然部落이 모여 里·面을 형성하는 과정 즉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過程을 밝혀려고 하였다.

嶺西太白山地는 朝鮮時代에 대개 行政區域上 江陵府, 洪川縣, 橫城縣에 속하였다. 이들 郡縣에는 多數의 土姓이 존재, 府縣治所부근에 거주 하였던 바 이들에 의한 山間高冷地의 개척은 미미한 정도였다. 亡姓 또한 嶺東 北部나 嶺西 北部地方에 조밀하게 分布하고 있어 嶺西太白山地는 契丹이나 女眞, 蒙古 등의 침입을 보다 적게 받았던 것이다. 高麗時代에 江原道內 本貫姓氏들

중 旌善 全氏의 居住地移動이 제일 활발하였으나 嶺西太白山地에 유입하지는 않았다. 단지 密陽 朴氏가 橫城에 2차로 이동해 이주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朝鮮初·中期에 安東 權氏의 移入頻度가 가장 높았으나 전혀 없고, 平海 黃·清州 韓·慶州 金 등이 本研究地域의 開拓과 관계있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들 氏族들에 의해 嶺西太白山地라는 山間高冷地에 村落이 開拓된 것은 17세기 초 이후인 것이다. 金寧 金氏 등 20여개의 氏族이 이주해 와 自然部落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道巖里, 珍富里, 蓬坪里, 大和里, 屯內里, 北晴口里, 內面里, 瑞石里가 이루어졌다. 이들 江原道以外 他道の 本貫姓들에 의한 村落의 開拓과 擴大는 18세기에도 계속되었다. 延安 金氏 등 20여개 姓氏가 17세기 村落 부근에 새로 村落을 개척하게 됨에 따라 17세기의 里는 面으로 승격하는 대신 橫溪里, 洞口里, 上珍富里, 綿溫里, 新里, 安味里, 石門里, 自浦谷里 등 30여개리로 分化하였다. 이들 氏族들은 대부분 中央의 政治軍事的 變革에 따라 피신·은둔차 이주해 온 것으로, 18세기의 農業技術의 革新이나 人口增加에 遠因이 있다고 사료된다. 19世紀에는 村落의 擴大가 둔화되다가 20世紀初에 이르러 2개리에 불과했던 蓬坪面이 10개리로, 5개리였던 珍富面이 20개리로 급격히 分化하게 되었다. 道巖面과 內面은 당시에 里와 自然部落이 혼재할 정도로 村落의 開拓이 늦었다. 결국 이들 村落은 3~4代정도 거주한 氏族들이 많은 것이다.

村落의 開拓과 擴大, 里의 分化는 交通路의 개설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미 安興—雲橋—大和—珍富—橫溪를 잇는 驛路를 따라 驛村이 일찍부터 開拓되었고, 驛路는 아니지만 橫城—江陵을 비교적 직선으로 이어주는 屯內—구두미재—蓬坪—珍富路가 다음으로 人口移動과 村落 開拓의 통로를 이루었다. 南北方向으로는 晴日—瑞石路나, 珍富—망아다리 약수터 고개—을수동로 및 蓬坪—九木嶺—筮谷路가 비교적 일찍 開通되어 주요 氏族들의 移動路가 되었으며, 靈頭嶺이나 五臺山을 넘는 길은 이 이후에 빈번하게 이용하였다.

地形的인 條件도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氏族의 移動이 빈번하지 않던 17세기에는 驛路와 屯內—蓬坪路를 따라 村落이 帶狀으로 散在하다가 그후 북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18世紀에 와서는 500m 이하의 상대적으로 低地帶인 北晴日面, 甲川面, 屯內面, 瑞石面에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에는 해발고도상 準高冷地인 이들 地帶를 제외하고는 村落開拓이 屯化되었으나, 20世紀初에 들어와 600m 정도의 山間高冷地에까지 村落의 擴大와 里의 分化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珍富面, 蓬坪面이 이 경우에 속하고 그 이상의 高地帶인 道巖面과 內面의 일부는 가장 늦게 村落의 開拓이 끝난 지역이었

던 것이다. 道巖面의 경우 東海의 섯바람을 막아주는 남북방향의 高山이 없는 관계로 嶺西 太白山地 중 最高冷地인 것이다. 이러한 村落의 擴大過程은 日帝初 土地調査事業에 의한 유랑민의 급증이나 早生種品種과 같은 農業技術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嶺西太白山地에 있어서 村落의 起源, 擴大와 分化過程은 山間高冷地를 개척해 나간 氏族들의 農耕方式 즉 山地農業의 變化를 함께 다루어야만 山地開拓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고, 나아가 村落의 擴大와 分化過程을 理論化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ettlement Development in the Western Taebaek Highlands; with an Emphasis on Clan's Migration

Han Suk Ock*

Summary

Many aboriginal clans have migrated to western Taebaek highlands, high and cool lands, from other Provinces rather than from Kangnŭng, Hongch'ŏn, and Hoengsŏng since the 17th century. Their migration was probably caused by political and military refuge at the early years and by population pressure at the next. This cool highlands has been apparently colonized during the 18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The origin, spread and differentiation of rural settlement with an emphasis on these clan villages was closely related to the traffic routes, especially *Pyonghae Yukro* (驛路) which connected Wonju with Kangnŭng, the principal road of nine main routes during the Yi dynasty. Therefore, rural settlements were made disper-

sedly all along the east-west zone at first and gradually centralized in some places, resulting in settlement differentiation.

Also the altitude above sea level had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 Differentiation of *Ri* (里), the most basic administrative boundary as well as the smallest unit of residence, had started in the lowland (200~500m), and moved to the higher land. *Ri* had composed of several natural villages (自然部落) made by several clans. Up to the early 20th century had not Doammyon and Naemyon, which were the coldest areas, been differentiated as an independent *Ri*. *Myon* (面) boundary corresponded to river basin.

However, the history of reclaiming the highlands should be explained depending upon the change of montane agriculture such as shifting cultivation, annual cropping, and paddy rice farming.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34, pp.30-46, 1986.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ŏn National University